

## 한국산 들명나방아과의 한국미기록 4종에 대하여 (2)

배양섭, 김용기, 이봉우, 백문기

인천대학교 생물학과

명나방과(Pyralidae)는 Hampson (1891), Börner (1925), Kennel & Eggers (1933), Hasenfuss (1960), Munroe (1972), Kuznetsov & Stekolnikov (1979)에 의해서 분류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. Minet (1982, 1983, 1986)은 최근 암수 생식기를 중심으로 계통해석을 하여 명나방과(Pyralidae)와 포충나방과(Crambidae)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7아과와 18아과를 인정하였고, Munroe & Solis (1999)등은 이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. 그러나 현재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의 과로 취급하기도 한다 (Shaffer *et al.*, 1996; Heppner, 1998). 한편 한국산 들명나방아과의 연구는 1889년 Leech의 3신종 기록이후, Okamoto (1924), Shibuya (1928), Maruda (1929), Nagayama & Okamoto (1940), Park (1976, 1983, 1990, 1993)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. 특히 Park (1976)은 24종의 들명나방아과를 포함하여 56종의 명나방 미기록종을 기록하였으며, 현재 한국산 들명나방아과는 62속 137종이 기록되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중요연구기관의 소장표본을 대상으로 정리한 결과 금년도에 한국미기록 4종이 추가로 기록되어 성충, 암수 생식기를 비교하여 보고한다.